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레 19:18)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죄인들의 친구 (마 9:9-17)

교회는 구원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하나로 묶어 보면 더러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의 별명은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 먹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세리의 또 다른 별명은 '죄인'입니다. 세리의 집 담벼락에는 항상 '죄인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마태의 인생은 너무도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순교자의 삶을 산 마태는 마침내 '마태복음'을 저술하기까지 했습니다.

1. 예수님은 인생을 부르시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였던 그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마도 자신의 삶에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사건건 시비를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인 죄인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죄인들과 섞여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더 놀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교양 있고 거룩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들도 오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불러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도구가 되기까지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Sinners' Friend (Matt. 9:9-17)

The Christian church is a place where the saved people congregate. On the other hand, it is the place where unsaved people can get together. It is a church where the people of two different aspects who are sinners are summoned to confess, and believe in Jesus and live as a holy people of God.

In the text, it was shown that Jesus made Matthew his disciple. Mathew's nickname was 'tax collector.' At that time, the tax collectors had a job of which they sucked up their people's blood as an agent for the Roman government. Another nickname they had was also 'sinners.' 'Sinners house' was at all times written on the fence wall of tax collector's house.

Nevertheless, Jesus summoned such a tax collector, Matthew. He made him his own disciple of spreading the Gospel. The life of Matthew who obeyed Jesus calling was wonderfully changed. Matthew who sacrificed his life for the Gospel work, lived his life as a martyr, and at last wrote 'The book of Matthew.'

1. It is Jesus who summons people and gives them a beautiful gift

Matthew means 'God's gift.' Because Jesus summoned and made Matthew his disciple, How much glorious and excited he was?

When Jesus summoned Matthew, it was not easy for him to make a decision to follow Him. Nevertheless, the reason why Matthew followed Jesus was that he wasn't satisfied with his own life.

2. The Christian church is the place where sinners get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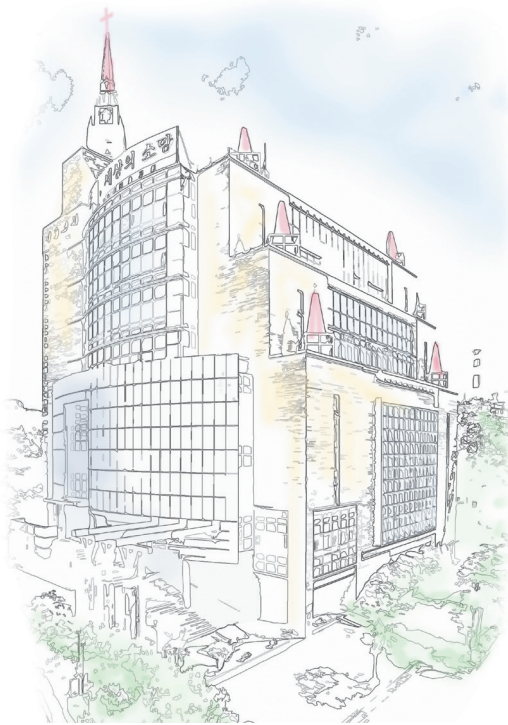
Since Pharisees who didn't like what Jesus did and were critical of every single thing were astonished when Jesus made Matthew his disciple who was a tax collector and sinner. Moreover, they were much more startled when Jesus went to sinner's house and had dinner together with many sinners. At that time, The Jews never had dinner together with strangers or sinners.

Jesus said, "For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the protesting Pharisees. The Christian church is the place where a cultured and sacred person could not only come, but also a dirty or filthy person. The sinners hear God's word through a worship service, are brought up, believe in Jesus by their confession, and are saved. Moreover, the Christian

church makes them live Christ's fragrant life.

My beloved Christians,

By calling sinners and making them become the saved people, you must preach the Gospel until you become a tool of Jesus' Gospel mission.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used to bring up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3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 중에 진행

- 청년1부 : 17일(수)~20일(토) 아가페타운
- 소망부 : 18일(목) 오전11시/ 웨스트민스터 홀 -

2013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 되고 있다. 지난 주 영어 예배부와 사랑부를 시작으로 금주는 청년1부(지도 : 허승일 전도사, 부장:송인권 집사)가 7월 17일(수)~20일(토)까지 아가페 타운에서 소망부(70세 이상, 지도: 서명철 목사, 부장: 우상태 집사)가 7월 18일(목)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침을 얻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유아부	7.26(금)~28(주일)	서울교회	예수님과 함께 친구 찾기 GO! GO!(마25:40, 레19:18)
유치부			예수님과 함께 친구 찾기
유년부			Jesus Festival
초등부	7.22(월)~23(화)	아가페타운	예수님이 먼저 보여 주셨어요
중등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고등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만 남
사랑부	7.13(토)~14(주일)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구원으로 가는 헬렐렘프
청년1부	7.17(수)~20(토)	아가페타운	THE ONE
청년2부	8.15(목)~1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
청년3부	8.15(목)~16(금)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
디아스포라부	7.27(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에바다부	7.29(월)~31(수)	아가페타운	작은 자들의 친구
신혼가정부	8.23(금)~24(토)	아가페타운	부부, 평생의 친구
소망부	7.18(목)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2013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 7월 17일(수) / 수여식 : 8월 25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하영수 장로)는 2013년 하반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고등학생, 교역자 · 직원 · 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특기자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특기자는 6개월 이상)이며 교회 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7월 17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 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랑의 대잔치 개최

스데반회(회장 : 김광룡 집사)는 오는 20일(토) 교회와 교회 주변에 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랑의 대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의 서울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리고 어르신 공경과 전도 차원으로 '사랑의 대잔치'를 개최 한다. 사랑의 대잔치는 경건회, 식사 대접, 공연과 레크레이션 등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어진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란다.



2012년 사랑의 대잔치

무지개회 총회 개최

무지개회는 2일(화) 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

- 회장: 박우주 권사
- 총무: 남태순 권사 / • 부총무: 이영희 권사
- 회계: 최소희 권사 / • 서기: 김신영 권사

전반기 회계 감사 실시

7월21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2013년 전반기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찬양대, 교회학교 등 각 해당부서 회계 담당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7월21일(주)까지 회계장부와 증빙자료를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95)

(문 94) 삼하14:27에 의하면 압살롬은 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하18:18은 압살롬에게 아들이 없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 사무엘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연대는 주전 8세기 중엽으로 간주됩니다. 소위 압살롬의 무덤은 지금도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데 그것은 헬라시대(주전 2세기경)부터 압살롬의 무덤으로 알려져 온 것 같습니다.(KN Schoville, Biblical Archaeology in Focus, Grand Rapids: Baker, 1978, p.414) 이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기 1년 또는 2년 전에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상속할 후사가 없었다고 하나 전에도 그에게 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Keil과 Delitzsch(Sanmul, p.412)에 의하면 삼하14:27에 세 아들이 있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유아시절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일 자기 이름을 보전기 위해 아들 대신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따라 다말이라는 딸 하나가 있었고 세 아들이 일찍 죽음으로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비석을 세웠으나 그는 요압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의 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능욕 당했을 때 다윗이 이를 벌하지 않았다 해서 2년 후 모든 왕자들을 양털 깎는 곳으로 청하고 잔치를 베푸는 중 암논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후 그는 그술로 도망가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2년이나 왕을 면대하지 못하다가 요압의 주선으로 부왕을 만나 그는 반역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딸 다말은 기브아의 우리엘과 결혼하여 마아가라는 딸을 낳았는데(왕상15:2) 마아가는 르호보암과 결혼하여 그의 계승자 아비암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자 아사왕은 그녀가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여왕의 모친 자리에서 실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왕상 15:10-13, 왕하 15:16) 이처럼 압살롬의 딸 다말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세 아들에 대한 것은 이름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일찍 유아시 사망한 것이 틀림없어 자신에게는 상속할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직분자필수반을 수료하며

신앙 상태 점검할 기회



안미희 성도 (16교구)

저는 작은 아이 전학으로 올해 초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은 지 9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 제 신앙은 많이 자라질 못했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일 년도 안 되어 방언하고 간증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우면서 도 전 그렇게 되질 않아 내 마음은 돌짜받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 게으름을 피워서 주일이면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곤 했는데(물론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겠지요), 지인으로부터 서울교회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왔던 수요일예배에서 담임목사님은 세 가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내용을 거의 기억할 정도로 쉽고도 편하게 설교 내용이 다가왔고 다음 주일인 4월초 바로 교회등록을 하였고 이전 때 주일마다 예배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총 8주간의 새신자 교육과 직분자 교육을 통해 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기회가 되었는데, 은혜로운 찬양과 편하고 쉽게 정리하여 지도하시는 목사님의 교육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느껴지고 나도 이전 정말 영적으로 자라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아직 기도조차 서투른 어린 아이와 같은 나의 신앙상태를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6교구 자매 다락방에 배정되어 다락방 식구

들의 따뜻한 권면과,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다락방장님의 모습을 통해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런 실천을 요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머릿속에만 갇혀서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과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때로는 세차게 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걸 느낍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에 투정하고 벗어나기도 했던 저 자신을 회개하고 앞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곳, 서울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조용히 뒤에서 기도로 섬겨주신,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초대의 글

벧이 되어주는 삶



서경학 집사 (초등부 부장)

가정과 나라의 희망인 꿈꾸는 아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초등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친구들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부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매일 릴레이기도와 매주 수요일예배 후 중보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성으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7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을 떠나 숲이 우거지고 냇물이 흐르고 시냇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서울교회 아가페타운"

에서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벧"(마 25:40, 레 19:18)이라는 주제로 "와友나友바이블레이스"센터 학습과 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 오셔서 벧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북한동포에게 벧이 되고,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벧이 되고, 장애인을 편견 없이 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작은이들을 형제자매처럼 대하며 벧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 풍성한 영적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지난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고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3 비전트립을 준비하며

타라즈 100만 영혼들을 위하여!



신두호 집사 (2013비전트립 총무)

이번 2013 서울교회 비전트립팀은 카자흐스탄의 타라즈 지역으로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카자흐스탄은 약 120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슬람교와 러시아 정교가 90% 이상이며 기독교인은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2007년도에 타라즈 지역에 미르교회를 건축하고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5명의 비전트립팀이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쌓아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을 전하시는데 있어 정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이 됐으면 합니다.

비전트립이란 기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인 것 같습니다. 저희 카자흐스탄 비전트립팀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준비과정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팀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카자흐스탄이, 타라즈 지역이 복음으로 변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타라즈 100만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들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님을 비롯한 타라즈의 미르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어린이!



김안성 목사
(유년부 지도)

“목사님, 복도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림이 있어요!!” 어린이성경읽기 모임에서 마가복음 4장을 읽었던 어느 주일에, 성경읽기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라온이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층 복도 벽에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날 성경읽기 모임에서 읽었던 ‘풍랑을 잠재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라온이에게 더욱 새롭고 가깝게 느껴졌나 봅니다.

주일 어린이 성경읽기 모임에는, 라온이처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친근하고 자세히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매주 40-45명씩 모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여 10장까지 읽었던

데, 매주일 성경본문을 직접 읽고, 본문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내용을 탐구하는 퀴즈를 풀고, 중요 구절을 암송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공부합니다. 영광펜으로 색칠하면서 집중하여 성경을 읽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구절의 의미를 익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직은 성경 찾는 것도 서툴고 성경날말의 뜻을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8명의 선생님들이 바쁜 걸음으로 다니며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간식도 나누어 주시곤 합니다. 어린이 성경읽기 모임을 통해 어린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믿음이 굳건해 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린이 성경읽기 모임 시간:

주일 오전 11:20-12:10 / 장소: 701호

* 2부 예배가 끝날 때까지 703호에서 지도교역자와 함께 놀이하면서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가브리엘 찬양대(대장:최광성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백경화집사의 지휘로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라, 우리를 부르는 음성있으니”, “Agnus Dei [하나님의 어린 양]”, “여리고 전투”의 네곡을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조현정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 그리고 바이올린 서진희 선생, 첼로 장유진 선생, 호른 강다해 성도가 협연한다.

■ 절전의 생활화 ■

우리나라 원전가동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올 여름은 특별히 절전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5일(월) 서울강남노회 증경노회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19일(금) 총회표준주석편찬위 및 감독위원회를 소집한다.

■ 사임: 청년담당 오세광 목사가 개인사정으로 2013년 6월 30일부로 사임함에 따라 청년담당은 천세중 목사, 금요기도회 찬양은 황광 목사, 사명자대회 지도는 장석남 목사가 담당한다.

■ 사임: 사무국 경리 직원 소윤경 집사가 개인사정으로 2013년 6월 30일부로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송미려 집사가 임명되었다.

■ 득남: 4교구 김정운 집사 김은아 집사

■ 주간식당봉사 : 뽀뽀 전도회(7.14) 마리아 전도회(7.21)

■ 금주의 식사 : 이을동 집사 김영정 권사 가정 오세백 집사 김태욱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미끄럼 주의

추차창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서울교회

주차장 내 미끄럼 주의

우리교회 지하 1,2,3층 주차장이 최근 시행한 방수막 코팅 작업으로 표면이 매우 반들거리고 다소 미끄러운 경향이 있어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고인 빗물로 인해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사람이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들은 주차장에서 급하게 뛰지 말고, 자동차는 서행

하므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성도의 품위를 지키는 주차문화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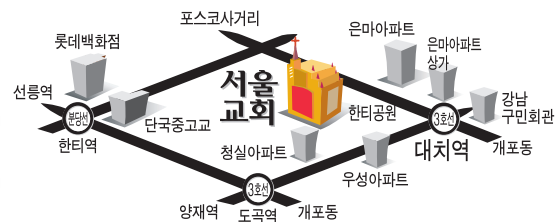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청년 1부 여름 수련회와 목요일에 있는 소망부 수련회가 은혜 중단할 수 있도록
- 이번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있는 스테반 회주회 "사랑의 대잔치"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도록
-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